



검찰은 즉각 윤석열·김건희 부부 소환 수사하고 기소하라!
명태균 게이트의 핵심 증거 윤석열·김건희 휴대폰 등 확보
위해 관저와 대통령실 압수수색하라!
오세훈, 홍준표, 윤상현 등 명태균 리스트 철저히 수사하라!

명태균 게이트가 트리거가 되어 윤석열이 만장일치 인용으로 파면됐습니다. 불소추특권이 사라졌는데도 검찰은 윤석열·김건희를 소환 수사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전히 선배 검찰 윤석열의 눈치를 보고 있습니까.

파면된 윤석열은 임기 내내 각종 의혹들을 일축하거나, 권력의 힘으로 방어해왔습니다. 거기에 한 몫을 한 게 검찰임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윤석열과 김건희가 명태균으로부터 약 3억 7천만원에 해당하는 여론조사 81건을 무상으로 제공받고 그 대가로 2022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에 개입했고, 윤석열·김건희 부부의 공천개입 육성까지 공개됐습니다. 이보다 명백한 증거가 더 나올 수 있습니까.

또한, 작년 22대 국회의원 선거 공천에도 개입했으며 김영선 전 의원에게 장관 또는 공기업 사장 자리까지 제안하는 매관매직 의혹까지 제기됐습니다. 그런데도 검찰은 윤석열·김건희 부부를 소환은커녕 압수수색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공익제보자 강혜경씨에 따르면, 검찰은 12월부터 김건희와 소환을 조율했다고 합니다. 또한, 검찰은 강혜경씨에게 추가 진술은 안 해도 된다, 윤석열과 김건희 조사만 남았다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검찰은 답하십시오

12월부터 4개월 동안 김건희 소환조사 조율만 했습니까.

김건희 출국금지는 신청했습니까.

소환에 응하지 않는다면 긴급 체포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검찰은 윤석열-김건희 부부의 공천개입 정황을 확인했음에도 왜 윤석열-김건희 앞에서 수사를 멈췄습니까.

또한, 검찰은 공천개입을 밝힐 핵심 증거, 2022년 보궐선거 때와 2024년 총선 즈음에 사용했던 김영선 전 의원의 휴대폰도 확보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확보한 거라곤 2024년 9월 이후 사용한 휴대폰뿐입니다.

공익제보자 강혜경씨에 따르면 김영선 전 의원이 사용한 번호가 4개, 휴대폰은 10대에 달한다고 합니다. 특히, 강혜경씨가 한달 전, 핵심 물증인 김영선 전 의원 휴대폰이 있는 장소 주소까지 제보했다는데 검찰이 확보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중앙지검은 윤석열·김건희 부부를 수사할 의지가 있습니까.

오늘 더불어민주당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은 이를 확인하기 위해 중앙지검에 왔습니다.

이창수 지검장은 면담에 응하십시오. 그리고 답하십시오.

윤석열이 파면돼 수사를 막을 걸림돌도, 수사를 미룰 명분도 사라졌습니다.

검찰 내부에서 김건희 소환을 늦추는 자는 누구입니까?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지시를 받은 심우정 총장입니까?

검찰은 윤석열과 김건희를 소환하여 조사하고, 낱낱이 수사해서 기소해야 합니다. 검찰 포토라인 앞에 설 사람은 바로 윤석열과

김건희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은 강력히 촉구합니다.

윤석열·김건희 부부의 휴대폰 등 증거 확보를 위해 관저와 대통령실을 압수수색하십시오. 지금 이 순간에도 증거인멸이 이뤄지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불소추특권이 사라진 피의자 윤석열을 재구속하십시오.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매우 커, 윤석열 구속을 통해 핵심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또한 오세훈, 홍준표, 윤상현 등 명태균 리스트 인물들을 철저히 수사하십시오. 명태균 리스트 중 기소된 정치인은 김영선 전 의원뿐입니다. 그만큼 검찰의 수사가 더디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더불어민주당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은 윤석열·김건희 부부의 국정농단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의 그 날까지 앞장설 것입니다.

2025년 4월 10일

더불어민주당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 일동

- 단장: 서영교
- 부단장: 김병기, 한병도
- 위원: 김승원, 전용기, 김기표, 김용만, 박균택, 박정현, 송재봉, 양부남, 염태영, 이성윤, 이연희, 허성무